

## 임대 4000세대 '아우성'

### 광주·전남 전세난 속 분양 전환 놓고 곳곳 분쟁

당초 분양아파트로 지었다가 분양이 되지 않자 임대로 돌렸던 한 건설사가 최근 전세대란 속에 주택시장이 꿈틀대자 분양 전환을 추진, 입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광주시와 광주 하남지구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주)부영이 입주 당시 5년 임대를 약속해 놓고 분양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자 이를 뒤집고 강제로 분양 전환에 나서고 있다며 분양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임대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지구 부영아파트는 당초 분양아파트로 지었지만 2008년 분양이 잘 되지 않자 임대로 전환해 1500여 가구가 임대로 살고 있다. 하지만 부영 측은 지난해 11월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임대료면 17가구 등 오는 3월까지 50가구가 집을 비워줘야 한다. 이후 올해 400여가구, 내년 1028가구 등 모두 1500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분양을 받거나 집을

비워야 한다.

이같은 사례는 광주 하남지구뿐만 아니라 광주 수안지구 870여 가구, 목포 옥암지구 970여 가구, 무안 남약지구 610여가구 등 모두 4000가구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전세대란'이 벌어져 이사할 곳이 없는 데다,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분양받으려면 당장 1억 원 이상의 거금을 마련해야 해 상당수가 길거리로 나왔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광주 하남2차 35평의 경우, 전세 8500만원에 살고 있지만 분양가격이 1억6600만원이어서 계속 살려면 전세금 외에 8100만원이 필요하다.

특히 입주민들은 "입주계약 당시 부영은 구두로 5년 임대 보장을 약속했다"며 분양전환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남지구 입주민들은 집집마다 '분양전환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오는 3월말께 규탄 집회를 하는 등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목포 옥

암지구 입주민들도 지난해 두 차례 집회를 연데 이어 오는 12일 3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5개월째 반발하고 있다.

무안 남약지구 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박영근 회장은 "전세품귀를 틈타 부영이 밀어부치고 있다"며 "부동산중개소까지 개입해 전세가격이 5000만원이나 폭등하는 등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광주시·목포시·무안군 등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재에 나섰다. 부영 측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영 관계자는 "당초 분양아파트로 지어졌고 계약서에도 2년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분양전환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양 받으려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극소수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름배추 모종 분주

7일 나주시 산포면 덕레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농촌 아낙네들이 여름배추 모종 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있다. 여름배추 모종은 이날 말 출하돼 노지에서 재배된 뒤 6월 중순에 수확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姜시장, 과학벨트 당론 수정 요구

### 손학규 대표 '호남 양보론'에 정면 반박

강운태 광주시장이 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충청권 유치 당론을 사실상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가 최근 광주를 찾아 거들 '호남 양보론'을 주장한 데 대해 '민심을 한사코 외면하고 손바닥으로 가리는 격'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광주와 충청, 영남에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염두에 두고 정한 충청권 유치 당론은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현실적·논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삼각벨트 주장은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호남을 배려할 수 있으며,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기초과학 조성과,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염두에 두고 정한 충청권 유치 당론은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현실적·논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강 시장은 또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국제과학비즈

니스벨트법안이 광주·전남 및 충청·영남 분산배치 주장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실·국장에 과학자와 과학 전문 언론인, 정치인 등에게 삼각벨트 논리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4~5일 광주를 방문해 "현 정부가 과학벨트로 충청도와 전라도를 싸우게 하려고 한다"며 "강운태 광주시장이 삼각벨트를 요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정권을 교체해야만 우리가 바라는 정책을 펼 수 있으니 광주·전남에서 양보를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조합장 불법선거 신고, 조합서 포상금 준다

### 11일 완도 금일·소안 수협장 선거 2억 내걸어

농·수·축협 등 공공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이 잇따르면서 전남 선관위가 공공조합장 선거 사상 가장 많은 2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전남도 선관위는 오는 11일 실시되는 완도군 금일 수협과 소안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법 관련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각각 2억원씩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의 신고 포상금은 500만~1000만 원대에 그쳤으나, 이처럼 2억원이라는 거액의 포상금이 등장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치러진 신안군 임자 농협장 선거와 최근 목포 수협장 선거 등이 잇따라 '돈 선거' 파문을 겪으면서 사전에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어 '금품 선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선관위와 수협 측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농·수·축협 등 공공조합장 선거가 금품 살포 등으로 혼탁해지고, 재선거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완도군 선관위가 금일·소안 수협과의 협의를 통해 각각 2억원씩의 포상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관련 신고 포상금은 모두 국비로 확보하지만, 공공조합장 선거 관련 신고 포상금은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의 협의를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두 곳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한편, 완도군 선관위는 선거 부정감시단을 과거 조합장 선거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13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고, 전남도 선관위는 특별기동조사팀 2개팀을 금일과 소안도에 24시간 상주시키면서 감시·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권익기자 cki@

## 광주천에 주암호 물 흘러보낸다

### 수질 개선 위해 매일 10만톤 방류 추진

광주시가 광주천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해 매일 주암댐의 깨끗한 물 10만톤을 광주천에 직접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영산강 상류인 산동교에서도 10만톤을 끌어와 기존 14만4000t과 함께 광주천에 흘려보낸다는 방침이어서 광주천의 하루 방류량은 34만4000t에 달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7일 "영산강을 살리기 위

한 단기대책으로 광주천의 수량을 대폭 늘리고,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단기 방안을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산강 상류인 산동교에서 원지교까지 10만톤을 확보하는 데 250억원, 주암댐에서 10만톤을 동구 용산교까지 끌어올리는 데 9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광주천 둔치에 220억원을 투입해 정화시설을 설치, 자체적인 수질 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들 단기 방안 외에도 광주시는 하수 관계 정비, 비점오염원 저감 등 장기방안 10개 사업에 모두 2조69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최근 광주천과 관련 각계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수변 정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승촌보·죽산보 설치, 수변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을 골자로 한 영산강살리기사업 6·7공구 사업에는 모두 3987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 보이십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프리미엄, 침단지이2차!

광주 R&D 특구에서도 더욱 빛나는 아파트, 침단지이 2차  
새롭게 열어가는 광주 르네상스시대, 그 중심에 1,140세대 대단지로 완성되는 침단지이2차 있습니다!

**오늘접수**  
▶ 전화: TV / 방문 / 예약 / 청약 등  
▶ 현장: 3월 8일 ~ 20일 오전 10시부터

신청금  
백만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무제한  
전매가능

청약통장  
무관

**광주 침단지구의 완벽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침단지이 2차

- 주거문화의 프레스티지 1,140세대 대단지의 완성
- 브랜드의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
- 교통중심의 프레스티지 빛고개로 연장 개통
- 미래가치의 프레스티지 광주 R&D특구 지정

**[침단지이 2차] 84㎡A / 84㎡B | 층 546세대**  
**분양문의 : 062-368-2020**

침단지이 2차  
가장 스마트한 방법  
바로 QR코드

**침단지이 2차 페이스북 오픈 이벤트!**  
침단지이 2차 팬페이지에서  
▶ 흥미요를 클릭하세요  
▶ 스티커박스 기프트콘을 300개 드립니다  
http://www.facebook.com/cdx2

시행사 **하나다올신택** | 위촉사 **건축과 디자인** | 시공사 **GS건설**  
-자이 홈페이지 (www.xi.co.kr)